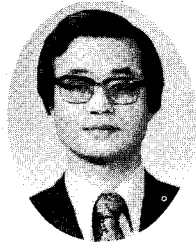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



원 송 대
(연암축산전문대 양계과장)

(제 6 성) 과연 EDS는 얼마나 심각한가

최근에 양계장에서 떨어지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값이고 또 하나는 산란율이 라고 한다.

알값이 안오르는 것은 경기탓으로 돌리고 산란율이 떨어지는 것은 EDS라고 꾸념하기도 한다

과연 EDS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EDS란 병은 1976년 구라파에서 산란율이 떨어지는 증세가 나타나서 처음에는 원인을 알길없이 1976년 병을 구명하여 산란율 떨어지는 증세라 하여 EDS' 76라 병명을 붙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산란율이 떨어지면 사용하는 대명사처럼되어 버렸다.

이것은 산란피크에 이른 닭에서 잘 나타나며 산란율이 30~50% 하락하면서 연란(Soft Shell egg)과 난각이 없는 알(Shell-less egg)이 많이 보이고 5~6주가 지나도 정상산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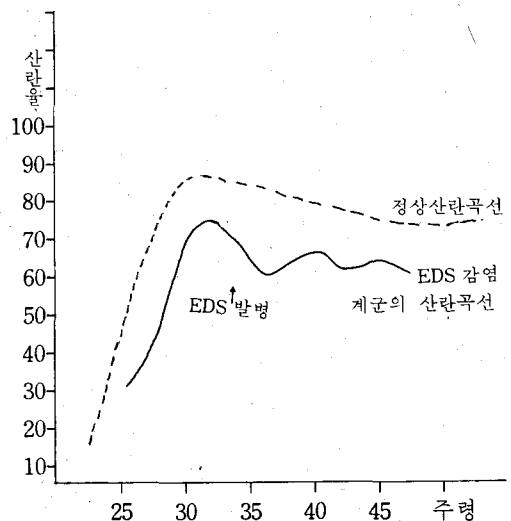
약간의 설사가 보이기도 하나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특히 구라파에서 수입한 닭에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 병이 발병한 나라에서 P.S도입을 금하는 것이 우선이지 백신을 수입한다는 것은 경비가 많이 들어 문제가 있다.

그런데 분명히 EDS에서 알아야 할 것은 비록한 농장에서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옆 계사로 전염되기란 어려운 것이다.

어떤 경우 한계사에서 발병했더라도 칸막이를 칠 경우도 예방이 된다고 한다.



EDS와 아주 흡사한 산란율 저하는 AE가 있다.

산란계군이 어떤 외부증상 없이 산란율이 갑자기 30~40% 떨어지면 AE (뇌척수염)IB (전염성기관지염) 및 사양관리의 허점을 조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난 추위에 산란율이 떨어지는 것은 정상일 정도로 모두 경험했던 일이 아닌가?

(제 7 성) 에독시퀸 (Ethoxyquin)과 닭뇌연화증과의 관계는?

사료중에 지방과 비타민은 산화에 의해서 파괴되기 쉽다.

이중 비타민E는 쉽게 파괴되어 육계에서 뇌연화증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육계업자는 여름철 사육시에는 이런 지랄병 (Crazy Chicken disease)이 생길까봐 3~5주령에 토코페롤 (Tocopherol)을 구입하여 투여하므로 어느정도 병의 진권을 막기도 한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사료중 지방의 산화를 방지하므로 특히 비타민A와 E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약제중에 에독시퀸 (Ethoxyquin)과 섞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사육자를 보호해 주는 방법이다.

날씨만 더워지면 병아리에서는 뇌연화증, 돼지에서는 심장병 (mulburq heart disease), 소에서는 백근병 (Whiti muscle disease) 같은 것은 모두 비타민E와 관계가 깊다.

(제 8 성) 케이지 육추의 문제점

㉞ 케이지 상하로 온도 맞추기가 어려워 상단은 너무 더워 털갈이가 늦고 하단은 추워서 설사를 하는 것이 문제이다.

㉟ 환기를 하자니 너무 온도가 떨어지고 그만두자니 공기가 탁해서 CRD와 같은 호흡기병 발생이 염려된다.

㊱ 케이지 육추에서 각약증이 사육추보

다 더 문제된다.

철사로 만든 것이라 닭발가락사이에 상처를 일으켜 세균의 침입문호가 되어 관절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육추초기에는 바닥에 사료포를 깔아주는 것도 예방의 한 방법이다.

㉠ 케이지에서 사육한 닭은 장이 깨끗해서 사료효율이 좋으므로 체중증가도 빠르다. 그러므로 자칫하면 표준보다 체중이 높아져 오히려 산란이 피해가 되므로 체중을 측정하여 적절히 제한 급여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 신장기능 장애가 문제이다.

케이지 육추는 운동부족과 음수의 부적절로 신장기능 장애가 생기기 쉽다.

그래서 산란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출혈성신장 및 지방간의 증세가 나타난다.

(제 8 성) 닭의 체온 조절은 어떻게?

닭도 사람과 같이 온혈동물이므로 내부장기는 10.8°~107.6°F을 유지한다.

열의 발생은 근육운동과 조직내의 대사작용으로 외부 기온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사료를 많이먹고 열발생을 많이 하여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닭의 열은 방사, 전도, 대류 및 증발에 의해 체열을 잃게된다.

닭은 땀샘이 거의 없으므로 날개밑과 같은 피부에서 열을 식히려고 여름철에는 날개를 들고 호흡에 의해 열을 발산하려고 심한 호흡을 한다.

외부 기온이 30°C 이상이 되면 체온이 약간 오르면서 사료섭취량이 급감한다.

그러므로 혈중 Ca이온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산란율이 떨어지게 된다.

이때 연번을 예방하려고 단수하다는 것은 닭 생리에 위배되는 사항이다.